

日本の Audio 市場

日本の 오디오 市場 가운데서 테이프 關聯機器의 比重이 높아가고 있다. 올해 일본의 오디오 機器 出荷金額은 7,476억엔으로 예상되나 이 가운데 60%를 라디오 카세트를 비롯한 테이프 關聯機器가 차지할 것으로 推定된다. 成長 製品인 미니컴포터블 카세트화가 進展되는 등 테이프 플레이를 重視하는 경향이 있다. 간단한 오디오 소오스로써 테이프의 好評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테이프 關聯機器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라디오 카세트, 헤드폰 스테레오, Karaorche, 데크, 카 스테레오의 5개 品目이다. 이 가운데 헤드폰 스테레오와 Karaorche는 최근 수년간 急成長한 製品들이다.

올해 일본의 오디오 機器 出荷金額은 7,476억엔으로 前年比 伸張率은 1.5%增으로 豫想된다. 이 가운데 테이프 關聯機器의 構成比는 61.5%에 해당하는 4,596억엔으로 推定된다. (日本電波新聞社 추정).

品目別로 보면 가장 構成비가 높은 것이 카

스테레오로 오디오 機器 전체의 2割增을 차지한다. 더욱이 스테레오의 경우 自動車 메이커의 단계에서 완성된 車에 組立되어 輸出되는 것도 일본의 國內 出荷로 計上되고 있다.

라디오 카세트는 스테레오, 모노랄을 포함한 1,142억엔으로 構成비는 15.3%로 추정되며, 市場에서는 低價格化로 伸張率은 前年比 4% 정도 下回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헤드폰 스테레오는 작년 實績으로는 재작년에서 5萬대 넘게 떨어지는 230萬대로 멈추었으나 小型, 輕量製品의 出現으로 인기를 되돌리고 있다. 올해에는 재작년 수준인 215萬대, 520억엔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여름철 需要에 따라서는 220萬대가 기대되고 있다.

최근 3년간에 急成長한 것이 Karaorche이다. Karaorche는 본래 業務用으로 출발했으나 1980년부터 83년에 걸쳐 家庭用이 커다란 市場을 구축했다.

작년의 家庭用 Karaorche의 日本 國內 出荷台數는 昨年比 大략 25%增인 150萬대, 金額으로는 同30% 增加한 750억엔에 이르렀다. 市場에서의 成長 추세도 일단락되고 있어 올해의 出荷台數는 재작년 수준인 120萬대 정도에 멈출 것으로 본다.

데크는 카세트와 오픈의 두가지 型이 있으나 이 가운데 오픈의 出荷台數는 작년에 2萬대를 下回하여 前年比 63%減小되었다. 카세트는 台數 金額이 모두 1% 減小된 13萬 7,000 대로 大략 金額으로 590억엔이다. 올해의 需要 예측은 台數, 金額이 모두 제자리 걸음이다.

라디오 카세트는 헤드폰 스테레오, 카 오디오와 함께 「테이프 오디오時代」의 主役이다.

스테레오, 모노랄을 합쳐서 매년 400萬대 이상이 自國內로 出荷되고 있어 中高校生을 중심으로 安定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스테레오 라디오 카세트에 있어서는 ① W 카세트화 ② Fashion化 ③ 低價格化 ④ 女性購入者 增加 등의 경향이 있다.

W 카세트化에는 올 봄의 商戰에서 일단 彈力を 얻었다.

메이커 측의 調査에 의하면 작년 1~6월의 W 카세트 比率은 10%를 약간 上回했으나 올 봄의 商戰에서는 需要를 따르지 못하는 폭발적인 인

기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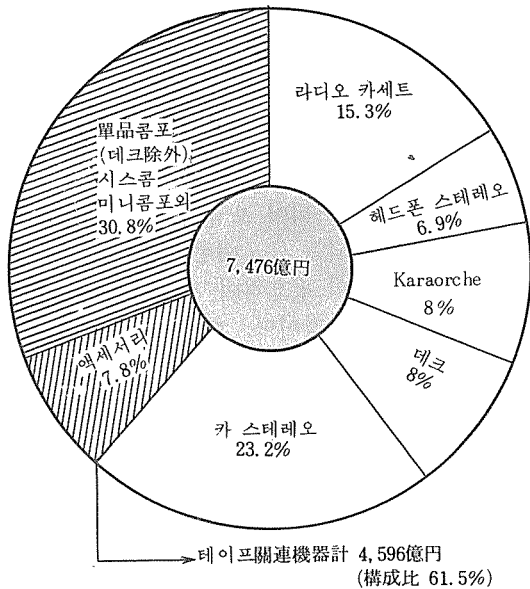
라디오 카세트와 미니컴퓨터블에 있어 W카세트를 봄의 重點商品으로 내놓은 日立에서는 작년의 2배가 되는 生産計劃으로 대처했으나 受注에 따르지 못해 生産計劃을 다시 3~4배로 상향 조정했다. 한때 라디오 카세트 生産 라인의 90%를 W카세트에 돌릴 정도였다.

3월에 販賣된 스테레오 라디오 카세트 가운데서 W카세트가 차지하는 比率은 60% 前後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라디오 카세트의 Fashion化는 女性購入者의 增加와 깊은 관계가 있다.

각 메이커들은 女性市場 開拓을 위해 라디오 카세트의 디자인을 女性 대상으로 어레인지함과 동시에 퍼스텔 컬러를 채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스테레오 라디오 카세트 購入者 중에 차지하는 女性의 比率은 機種에 따라서 60% 前後에 이르고 있어 「女性主導型 商品」으로 대두되고 있다.



84年 日本國內 오디오 出荷·金額·品目別 構成比 推定(日本 電波新聞社 推定)

소위 패셔너블 라디오 카세트의 진출에 따라 스테레오 라디오 카세트의 低價格化가 진전되고 있다. 작년에는 대략 318萬대의 스테레오 라디오 카세트가 出荷되었으나 이 가운데 80~85%를 5萬엔 이하의 상품이 차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헤드폰 스테레오의 日本의 國內 需要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한 小型化 경쟁에 자극을 받아 年末年始 이후 활발해지고 있다.

小型化 경쟁에서 先頭走者는 작년 가을에 發賣된 SONY社의 「워쿠맨」 WM-20이다. 이어 AIWA社(HS-P6, 同P7, 同F7, 同U7), 東芝의 (KT-AS10), 松下電器(RX-S40)로 各社는 다같이 종래보다 小型化된 新製品을 發賣했다.

헤드폰 스테레오의 自國內 出荷는 작년에는 1979년 發賣 이래 처음으로 前年實績을 下回했다. 그러나 小型化의 충격은 예상 외로 강해 작년 12월 이후는 前年 同月比 증가되었다.

型別로는 라디오附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自國內 出荷推移를 보면 82년이 약 58萬대(前年比 2.9倍) 83년이 약 68萬대(同17%增)로 되어 있으며 올해에는 80~85萬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카 오디오의 83년도 日本의 國內 出荷台數는 前年比 약 7%增인 451萬대에 달했다. 製品別로 보면 콤포의 쇠퇴, One body 型의 急成長이 최근 2년 간의 추세이다.

自國內 自動車 販賣에 눈을 돌리면 작년의 新規 販賣는 538萬대로 史上 最高를 記錄하고 있어 올해 1~3월의 動向으로 보아 올해에는 이 記錄을 更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運轉免許의 保有者數는 82년 時點에서 男子 약 2,900萬명, 女子 1,300萬명이다.

카 스테레오의 普及率(裝着率)은 1975년에는 52.3%였으나 78년에는 60%를 초과, 83년에는 72.4%에 이르렀다.

限界 普及率은 77.6%로 試算되고 있다. 오디오 카 機器로서는 限界 普及率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